

한 검사(劍士)의 생애사(生涯史)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검도의 역사: 이종림 원로의 검사(劍史)를 중심으로

임용석(충북대학교) · 홍덕기(경상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 검사(劍士)의 삶의 이야기(生涯史)를 통해 대한민국 검도의 역사(劍史)를 알아보고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생애사적 접근방식을 선택했다. 자료의 수집은 1차적으로 문서, 저서, 학술논문, 신문기사, 잡지, 개인소장 자료(획득 메달, 고서, 사진 등)를 활용했으며 2차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radley(1980)의 방식에 따라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개인사(史)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사회적 맥락과 함께 검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검도 역사(歷史) 연구 과정과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검도의 원류(源流)에 대한 단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아 보급·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진 검도는 한 검도인의 63년간의 경험과 관심 그리고 연구를 통해 원류를 복원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인 용어사용(kumdo)을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 검사(劍士)이자 검에 대한 역사학자(劍史)의 고민과 연구가 녹아 있는 삶의 궤적.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홀로 걸어온 60여년의 검도인생에 주목해야할 이유다.

주제어 : 검도, 검사, 체육사, 원류

이 논문은 2015년 대한체육회 「구술로 만나는 대한민국 스포츠인 역사: 체육원로 25인의 증언」 발굴 사업 자료집(2015.2.28.)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deockkihong@gnu.ac.kr

1. 서론

인간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의미와 다채로운 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최인혁, 2015).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사회·문화적 산물이자 결과물인 것이다. 즉, 개인의 삶의 영역과 기록은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무도스포츠 중 하나인 검도는 죽도를 사용한 대련 경기다(박지훈, 김영하, 2017). 아시아·미주·유럽 등 세계 40여 개국에 보급되어있는 검도는 세계국제검도연맹(F.I.K: International Kendo Federatrion)을 중심으로 세계선수권대회, 학술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검도보급 및 확산에 힘쓰고 있다(대한검도회, 2019, 9, 16).

세계국제검도연맹에서 사용하는 검도의 공식 표기법은 일본식 표기법인 “Kendo”다. 이는 검도의 원류가 일본이란 인식에 근거한 결과다. 연구자가 가르치는 검도부 학생선수들에게 물어도 대답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검도인이 있다. 검도인이자 역사학자인 이종립이 그 주인공이다.

‘하얀 백발, 까무잡잡한 피부, 날카로운 눈매’ 화려하지 않지만 잘 정돈된 집무실에서 만난 이종립 대한검도회 회장의 첫 인상이다. 첫 만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회장의 눈빛이었다. 인자한 인상과 호쾌한 웃음에 비해 날카로운 이종립 회장의 강렬한 눈빛과 힘 있는 목소리는 그의 역동적인 검도인생을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검사(劍士) 이종립은 1939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그는 1973년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최초로 내건 장본인이다. 이후 40년 이상 대한민국 검도의 원류를 찾고 또 찾았다. 이와 관련된 글쓰기도 진행했다. 평생 검을 잡고,

검을 찾고, 검에 대해 써온 그는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찾은 것도, 이루어놓은 것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검(劍)에 관한 한 우리 민족이 동양에서는 최고(最古)이자 최고(最高)였다고 자부”한다. 그의 대한민국 검에 대한 자부심(自負心)은 검사이자 역사학자인 이종립의 자존심(自尊心)과도 같다. 일본식 켄도(Kendo)가 아닌 한국식 발음의 검도(Kumdo)¹⁾로 불러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종립은 197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일본 검도가 세계무대를 주도하던 시절, 세계무대에서 유독 약한 면모를 보였던 대한민국 검도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165cm로 검도계의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이종립은 검사(劍士)이자 검(劍)의 원류(源流)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이다. 검술 교본을 저술한 작가이자 검도칼럼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검을 사랑하고, 검에 대해 박식하며, 검 연구에 열정적인 한 원로 검도인인 이종립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즉 이 연구는 한 검사(劍士)의 삶의 이야기(生涯史)를 통해 대한민국 검도의 역사(劍史)의 한 단면을 알아보고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검도의 역사와 맥락을 함께해온 그의 다양한 ‘검’이야기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검도인 이종립의 삶을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고, 둘째, 역사학자로서 이종립의 노력과 결과물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경기인이자 역사학자인 이종립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종립의 검사(劍

1) 우리나라의 검도(Kumdo)를 지칭하는 일본어는 켄도(Kendo)다. 이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공통어다. 이종립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검도’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士)로서의 삶, 그가 연구한 대한민국 검(劍)의 역사(歷史) 이야기를 담은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검도의 역사를 이해하고, 검도의 의미와 그에 담긴 검도의 철학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한 <스포츠영웅구술채록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스포츠원으로 중 대한민국체육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체육인을 선정하고, 채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록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연구는 검사(劍士)이자, 검도의 역사(史) 연구자의 삶의 기록을 통해 대한민국 검도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생애사(life history)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생애사 연구를 진행할 때 자신의 생애 전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줄 대상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류태호, 2000), 경기인이자 행정가이고, 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온 학자이기도 한 이종립은 이 연구의 취지를 전달했을 때 연구대상이 되는 것을 흔쾌히 승낙 했다.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인 이종립은 1939년 11월 14일 서울 종로 1가에서 태어났다. 이후 6. 25전쟁 당시 피난길에 모친과 막내 동생을 여의고 부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졸업한 후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왔다. 대학 입학 전까지 다시 부산에 내려가 학업을 이어갔다. 16세에 처음 검을 잡았고, 전국대회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

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 정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다. 1965년에 27세의 나이로 이종립은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고, 동대학원 체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시기에는 대한민국 검의 역사에 대해 연구했다. 이종립은 1973년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한 인물이다. 검도인 이종립은 검사(劍史)에 대한 연구자이기도 하다. 연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이루어졌다. 주 자료수집 방법은 문서자료수집과 면담이었다. 연구대상 개인이 소장한 자료도 수집했다. 개인의 기억과 회상에 근거해야 하는 생애사연구의 특성상 다양한 자료를 함께 수집해 기억과 회상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삶 전체보단 운동과 관련된 삶의 궤적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종립의 저서 2권(정통검도교본, 2010, 샘이 깊은 물은, 2013), 학술자료 3편(한국고대검도사에 관한연구, 1983, 고대한국검술사의 일본 전의에 관한 연구, 1989, 조선세법고, 1999), 신문기사, 잡지기사 등을 수집했다. 수집된 문서자료를 통해 연구대상의 삶의 흔적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자료는 면담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에 활용했다. 우선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이종립의 ‘운동생애표’를 작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구성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2)와 같다.

면담 전 연구대상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했고, 동의를 구했다. 면담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7월 3일, 7월 16일, 10월 3일)에

한 검사(劍士)의 생애사(生涯史)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검도의 역사

표 1. 연구대상의 주요이력 및 연혁

주요 학력	1960년 부산사범학교 졸 1969년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졸 1983년 동대학원 졸
경기 실적	1958년 제39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단체전 우승 1969년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우승 1971년 제5회 충무공탄신기념 전국 시·도항 검도대회 일반부 개인전 우승 1971년 제51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단체전 우승 1972년 제53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단체전 우승 1973년 제2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개인전 3위 1974년 제55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단체전 우승
지도자실적	1980년 제3회 세계소년검도대회 한국팀 코치 단체전 준우승, 개인전 우승, 3위 2명 1985년 제6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한국팀 감독 단체전 3위, 개인전 3위 2명 1988년 제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한국팀 감독 단체전 준우승, 개인전 3위 1991년 제8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한국팀 총감독 개인/단체전 준우승 1997년 제10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한국팀 총감독 개인/단체전 준우승 2000년 제11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한국팀 총감독 개인/단체전 준우승 2003년 제12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한국팀 단장 개인/단체전 준우승, 개인전 3위 2009년 제14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한국팀 단장 개인/단체전 준우승, 개인전 3위 2013년~ 대한검도회장
행정경력	1983년~2000년 대한검도회 전무이사 2000년~2013년 대한검도회 부회장 2013년~현재 대한검도회 회장 2002년~2005년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위원 1988년~현재 국제검도연맹이사
연구	1983년 한국고대검도사에 관한 연구: 신라 본국검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년 고대 한국검술사의 일본 전이에 관한 소고, 한국체육학회지. 1999년 조선세법고, 한국체육학회지. 2005년 조선세법, 대한검도보
저서	정통 검도교본, 서울 : 삼호미디어 샘이 깊은 물은 : 서울 : 명일사
상훈	체육훈장 포장, 백마장 수장

결쳐 진행했다. 1차와 3차는 연구대상이 주로 업무를 보는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집무실에서 진행했고, 2차면담은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과 병행해 진행했다. 각 면담은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진행했고, 모든 면담은 영상촬영 및 녹음했다. 영상은 영상전문가가 별도로 촬영했고, 면담은 연구자가 보이스레코더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취를 진행했다.

1차면담은 이종림의 삶 전반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자가 작성한 반구조화된 질문 이외에도 비구조화된 질문을 병행해서 사용했다. 2차면담에서는 1차면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3차면담에서는 1차, 2차면담에서 분석된 중요한 사건이나 궁금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했다. 녹취된 모든 자료는 면담 후 3일 이내 전사를 원칙으로 진행했다.

3. 자료분석 및 진실성 확보

이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분석, 글쓰기의 모든 과정을 순환적으로 진행했다. 상호보완적, 통합적 관점에서 자료분석과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요교문, 임용석, 2018).

표 2. 구술채록을 위한 질문 영역 예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배경	삶	출생 시 상황	- 연도, 거주지, 가족, 친족관계
		교육	- 운동시작 전 체육활동 경험, 학업 수준
	가족	부모	- 종교, 경제력,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 생계방식
		형제	- 운동 유무, 관계, 영향
	기타		- 취미, 성적, 시대적 상황 등
선수 입문	학교생활	학업	- 교우관계, 성적
	시작계기	이유	- 자결, 보상, 권유
	기타		- 시대적 상황 등
학교 운동부 생활	학교생활	학업	- 학업,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운동	운동부 생활	- 훈련 경험, 환경(지원 등), 시합 경험(국내/외), 운동부 내 관계
	삶	가정	- 가족 지원, 가정생활
전문 선수	직업	운동	- 수입, 지원, 인지도, 훈련, 시합
	삶	가정	- 결혼, 인간관계
국가 대표	대표팀	운동	- 지원, 대표팀 내 관계(지도자, 팀원) - 훈련 / 대회 경험(국내 / 외), 메달획득, 수입
	삶	가정	- 결혼 - 인간관계
일반인	은퇴		- 이유, 시기 - 은퇴 후 직업(운동관련 or not) - 운동선수, 국가대표에 대한 회상 - 자녀의 운동 유무 - 아쉬운 점, 바라는 점

기사, 저서, 연구물, 잡지 등의 문헌자료 뿐 아니라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영역분석과 분류분석 방법절차에 따라 분석했다(Spradley, 1980). 수집된 자료는 수차례 정독했고, 그 자료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번호와 개념을 부여했다. 첫 번째 단계를 통해 부여된 내용의 주제를 포괄하는 중간주제를 생성했고, 다시 중간주제를 포괄하는 상위주제를 찾아내는 절차를 거쳤다.

전사된 원자료와 분석된 자료는 연구대상에게 보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질적 연구 전문가(생애사 연구) 1인과 함께 분석과 해석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토했다.

III. 연구 결과

1. 이종립의 인생 ‘사(史)’

1) 6.25로 떠나보낸 가족: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종립은 1939년 11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 그는 교동국민학교에 입학해 착실히 학교에 다니던 우등생이었다. 어린시절엔 집안사정으로 인해 친 부모와 외가 친척들 사이에서 보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다시 부모에게 돌아간 이종립은 교동국민학교 5학년 시절 6. 25를 겪게 된다.

그의 부친은 공무원이었던 관계로 먼저 피난을 가야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 둘과 함께 무작정 떠난 피난길은 녹록지 않았다. 한강다리가 폭파되어 관악산 근처 외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음날 뚝섬에서 배를 얻어 타고 간신히 당곡에 있는 외가에 도착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어린 이종림의 바람과는 달리 피난길은 지속됐다. 수원까지 피난 온 이종림은 피난민보다 먼저 도착한 북한 인민군과 만난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내 막내 동생 업고, (피난)가다가 보니, 당나귀를 끌고 인민군이 먼저 지나가니까 어.. 우리 할머니 어머니 그 빨갱이가 애들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어란에 잡아먹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웃음) 내가 그 건빵이라는 것도 내가 물어 먹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게 우리나라 건빵의 한 두 세배 쯤 되는 거야(2015. 7. 3. 1차 인터뷰 중).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지휘아래 치러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6. 25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겪게 됐다.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3일 만에 북한군에 점령당한 수도 서울을 9월 28일 한국과 UN군이 함께 탈환했다. 이종림은 9. 28 당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종림이 서울 집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길게 가지 못했다. UN군의 가세로 쉽게 끝날 것 같던 전쟁은 중공군의 가세로 길어져만 갔다. 결국 1.4 후퇴로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이종림의 가족 역시 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그는 두 번째 피난과정에서 모친과 막내 동생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했다. 그의 나이 13세의 일이었다.

일사 후퇴 이후에 고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외가집 땅에 있는데다가 모시고, 다시 내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만 부산으로 피

난가요. (부산으로 피난 가는) 그 안에 내 막내 동생도 죽었어. 마마(媽媽)를 앓아가지고 내 동생 죽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하고 내 동생하고 왔다가 부산에 있는 큰 집 당숙 뭐 이런 분들이 부산으로 오라 그래서 우리 그 육촌 형이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차를 보내줘서 군용차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죠(2015. 7. 3. 1차 인터뷰 중).

이종림은 피난기간 동안 모친과 어린 동생 떠나보내고 부산에서 다시 국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전화국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공무원 숙소, 큰집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다. 피난으로 인해 동급생들보다 2년 늦게 학업을 이어가게 된 그는 국민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서울 친척집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후 서울에서 중학교에 진학한 이종림은 아버지의 부름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학업을 이어갔다.

2) 부산에서 만난 검도: 상무관의 추억

‘상무관(尙武館)’

경찰에게 검도, 유도, 태권도 등을 가르치는 무도장이다. 이종림에 따르면 당시 상무관은 태권도 보다는 일본의 전통무도로 알려진 유도와 검도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35년간 이어진 일제강점기의 잔재(殘滓)였다.

그 당시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랬다고 해요. 그 당시에 검도를 하는 선생님들은 거의가 경찰관이었어요. 그니까 경찰, 전국에 그 각 시도에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경상도이든, 전라도이든 간에 경찰 그 도청 옆에 상무관이라는 게 있어서, 무도장이예요. 그니까 그 당시에는 검도하고 유도만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도 있고 일본 사람 걸 그대로 받아서 검도 유도를 했죠(2015. 7. 3. 1차 인터뷰 중).

2) ‘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커다란 일본식 집이었어요.”

당시 상무관은 높고 넓게 지어진 일본식 건물로 절반은 유도를 위한 매트가 있고, 나머지는 검도를 위한 마룻바닥이 깔려있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대한검도회 연수관 내 무학당 정도의 크기와 비슷했다. 커다란 상무관의 창문 너머로 우연히 접하게 된 검도. 아버지의 목검을 눈여겨봤던 중학생 이종림은 검도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검도 지도자)그 분들한테 여쭙봤어요. “우리는 못 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학교 파하고 와라.” 그래서 학교 파하고 가면 경찰관들도 하고 일반인들도 더러 있었고 학생 때는 아마 부산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보다 선배들도 여러 분 있었지만 제일 초기에 한 사람들 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검도를 하게 됐어요(2015. 7. 3. 1차 인터뷰 중).

이때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종림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상무관이었다. 당시 부산 상무관 검도인들은 경찰관이 대부분이었고 몇몇 일반인들로 구성되어있었다. 이종림은 부산 상무관에서 학생시절 검도를 시작한 1세대 검도인 중 한명이었다.

2. ‘검사(劍士)’ 이종림

1) 검과의 인연: 검도 스승 도호문과의 만남

“검도하려고 그러냐? 비싼데... 가서 해봐라.”

아버지에게 검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이종림에게 돌아온 대답이다. 1956년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6.25사변 등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부족한 시절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먹고사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공무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종사했던 이종림의 부친 역시

동일했다. 당시 상무관의 검도지도자들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검도를 지도했고, 이종림은 경제적 부담 없이 검도를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검도에 필요한 도복(道服), 호구(護具), 죽도(竹刀) 등 개인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연구자: 다른 운동들 같은 경우 운동을 하게 되면 장비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도복하고 목검, 죽도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비를 하셨는지요?

이종림: (웃음) 그 때는 말이죠, 좀 우스울 때예요. 그 때 지금 같은 장비는 파는 데도 없었고. (당시) 서울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부산에 없고, 오래 전에 쓰던 것들(장비들을) 그걸 막 꾸메³⁾가지고 입고. 이 장갑같이 손에 끼는 걸 손목이라고 하는데 그게 틀어지면 집에서 꾸메고, 어떤 때는 돈이 좀 생기면 저 구두 꼬매는 그 분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가족으로 하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도장에 빨리 가서 장비를 차지하기 위해 기다렸고, 도복도 제대로 없어서 츠리닝 비슷한 것을 입고... 지금 같은 이런 어.. 무도, 검도하는 도복이 아니더라도 어..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를 가리키며)이런 (정장)바지 말고 운동할 수 있는 옷이면 그걸 입고 시작을 했죠.

연구자: 기존에 상무관에 있던 분들은 다 전부 도복을 입고..

이종림: 예, 그니까 그런 건 입던 걸 우리가 갖다 빨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자기 게 있었지만, 호구(護具), 호구는 자기 게 없었어요(2015. 7. 3. 1차 인터뷰 중).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검도를 배우게 된 이종림은 행복했다. 특히 스승 도호문 선생을 만나게

3) ‘꾸메다’의 잘못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 그의 검도 스승 도호문은 일본 유학생 시절 검도를 배웠다.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대적 상황에서도 도선생은 일본인들과의 경쟁을 피하지 않았던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그는 이종립 등의 제자들에게 “일본 사람들도 날 무서워했다.”고 항상 자랑을 하고는 했다. 이종립은 “속이지 말라”는 도호문 선생의 가르침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 했다. 이는 이종립의 검도인생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작용했다.

속이지 말라. 예. 검도는 속이면 안 된다. 그 저 무슨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근데 모든 스포츠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웨이트 모션(faint motion)’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일로 집어넣고, 일로 찻다가 또 이렇게 차고 그러잖아요. 검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안 될 게 뭐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는) 것하면 혼이 났거든요. …(중략)… 인제 우리가 80 가까이 되면서 인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임자를 만나면 그게 (속이는 것) 안 돼. 구기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남을 속여서 이렇게 빠져나가지만 검도는 칼을 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헛치듯이 이렇게 (속일 때) 할 때 내가 놀라면 맞지만 이렇게 할 때 내가 치면 그 사람이 당황하는 거라고. 그런 소리예요. 그니까 정직하게 하라. 그건 뭐 그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와 닿죠.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2015. 7. 3. 1차 인터뷰 중).



그림 1. 1958년 부산 상무관 부속 도장.
두 번째 줄 왼쪽부터 7번째 줄 고 도호문,
그 앞 이종립(이종립 소장자료)

2) 無名에서 有名으로: 검으로 전국제패

이종립은 18세에 중학교를 마치고 사범학교⁴⁾에 입학했다. 사범학교는 당시 고등학교에 해당했지만 현 교육대학과 같은 초등교원 양성기관 역할을 했다. 교육대학과 같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입학도 어려웠다. 이종립은 공부와 검도를 병행하며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입학이 가능했던 부산 사범학교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사범학교라는 데는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던 학교예요. 어떤 일류고등학교보다도 사범학교는 특차였어요. 그걸 먼저 보고, 1차 2차보고 그럴 때인데, 사범학교 들어갈 때는 제법 우쭐거리고 들어갔어요. 국민학교 선생을 가리킬 목적으로 만든 학교가 사범학교거든요. 영어 일주일에 한 2시간. 국어 2시간. 뭐 수학도 한 시간 뭐 뭐 한 시간.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교육원리, 무슨 뭐 아동심리 이런 걸 가르쳤어요. 학교 선생님 시키느라고. 그러고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걸 많이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때는 국민학교 선생이 전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만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제 마음에 딱 맞았어요. 공부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었던 말이죠(2015. 7. 3. 1차 인터뷰 중).

활동적인 성격이었던 이종립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예체능 교과와 비중이 높았던 사범학교 생활에 만족했다. 원래 예체능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범학교에서 검도와 밴드부 활동도 병행했다. 학업, 검도, 밴드부 등을 병행하던 이종립은 사범학교 2학년 재학 중 39회 전국체전 검도대표 선수로 발탁되게 된다. 1958년 그의 나이 20세의 일이다.

4) 사범학교(師範學校) 개화기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설치됐던 초등교원 양성기관. 현 11개 교육대학의 전신에 해당한다.

경남 고등학교 선수가 4명에 사범학교가 나 하나에 끼웠어요. 그래서 뛰었죠. 그나가 상무관이라는 데에서 선발을 해서 선발경기를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이기는 순서대로 뽑았죠(2015. 7. 3. 1차 인터뷰 중).

10명이 넘는 사범학교 출신이 이종립과 검도 선발전에 함께 참가했지만 이종립 만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이종립은 당시 부산 사범학교 소속이었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경남고등학교 소속이었기 때문에 경남고등학교 소속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이종립의 스승인 도호문 역시 경남 검도대표팀의 지도자로 선발되었다. 당시 경남대표팀의 연습은 상무관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상무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연습을 진행했다.

연구자: 선생님 그러면 전국체전 대표로 선발이 되셨을 때, 5명이 한 팀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표팀에 선발되어 연습하는 과정에 대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종립: 저를 가르쳐주신 도호문이라는 선생님이 계셨고, 그 밑에 지금 한자가 다 생각이 안 나지만 김인식, 김하일 뭐 장경용 선생님들이 전부 경찰 분들이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대개 4단, 우리 선생님이 6단. 연습은 우리끼리 하고, 아니면 경찰관들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린 학생 때니까 주로 그 분들하고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잘 안 하려고 해. 우리한테 맞으니까. 다른 지방에 가는 것은 없고(전지훈련 등).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훈련을 좀 강도 있게 했다고 그럴까?(2015. 7. 3. 1차 인터뷰 중)

39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195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10주년인 해였다. 이를 기념

해 전국체육대회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체육대회 검도는 서대문에 위치한 교도관학교에서 열렸다. 최종 결승에서 경남은 무도 강호 경북을 제치고 우승을 했다.

그 때 그 당시 한 여섯? 여섯 일곱 팀 정도가 나왔어요. 리그전으로 두 팀을 몰아가지고 한 쪽에서 3팀 한 팀에서 4팀 해서 리그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1위 팀을 뽑아가지고 최종 결승을 했죠. 결승을 해서, 그 때 내 기억에 아마 경북이 무도가 꽤 셌어요. 유도 검도 다. 근데 경북고등부가 우리한테 지고 우리가 우승했죠. …(중략)… 지금 장외라는 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멀리 가. 멀리 뛰어나가면, 중지 그래서 제자리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고, 말하는 것도 심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선수들)불러가지고 주의 같은 걸 못하게 되었죠. 근데 (당시)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애가 치는 건 좀 약하다 강하면 줄 수 있다.” 그니까 지금 그랬다가 편드는 게 되지만 그 때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실제로 말을 하면서도 “조금은 약했지만 기회가 좋았다.” 이래서 “한 판!” 이럴 때예요. 재밌었어요, 그 때가 더. 교육적이고 학생들한테는 (2015. 7. 3. 1차 인터뷰 중).



그림 2. 39회 전국체전 금메달 앞면



그림 3. ‘정부수립 10주년기념’문구가 새겨져 있는 39회 전국체전 금메달 뒷면

‘단체전 우승을 통해 받은 금메달’, ‘전국 1위란 명성’보다 이종립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 것이 있

었다. 바로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우승의 포상 의미로 더 빨리 받게 된 검도 초단이었다.

금메달 받은 것보다 초단 받을 때가 더 흥분되고 그랬었습니다.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했다.’ 이제 말하자면 좀 빠르게 준 편입니다. 그 당시에 초단을 받으려면 대개 4년, 5년 뒤 이런데 저는 한 3년? 그 전에 받은 거죠. 전국체전에 우승했다는 이유로. 받고 칭찬도 받고 그 당시에는 초단이라고 그러면 우쭐대고 그럴 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4단, 5단 그러실 때니까. 그 땐 우리나라에 8단 선생님이 안 계셨을 때예요. 초단 받았을 때가 제일 기억에 있습니다(2015. 7. 3. 1차 인터뷰 중).

많은 사람들이 승단 시험에서 떨어진다. 하지만, 이종림은 초단을 받은 이후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8단까지 받게 된다. 그는 초단을 받은 지 30년 후인 1988년에 8단을 획득했다.



그림 4. 1958년 서울 교도관 학교 앞. 제39회 전국체전 우승기념. 뒷줄 가운데 故 도호문 선생. 앞줄 우측에서 두 번째 이종림(이종림 소장 자료).

3) 성균관 검도의 시작: 중앙도장의 탄생

이종림은 1965년 성균관 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다. 글 쓰는 것이 좋아 선택한 학과였다. 당연히 동아리는 검도부에 입부했다. 하지만 열악한 도장환경에 실망했다. 이후 이종림은 제대로 된

검도장 확보에 전념했다.

(제대로 된 검도 도장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교수들 찾아다니고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또 우리 4촌 형, 6촌 형 친구들이 학교 교수로 있고,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회관을 적당히 해서 검도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검도부를 뽑기 시작하고 67년인가에 성균관대학교 체육부로 검도부가 편입이 됐어요. 그니까 예산도 받게 되고.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 (중략) ... 우리가 중앙도장에 없을 때 성균관대학교가 중앙도장용으로 계속 역할을 했어요. 80년 초까지(2015. 7. 3. 1차 인터뷰 중).

“올림픽 종목에도 없는 검도를 왜 하려고해? 펜싱해 펜싱.” 검도장 확보를 위해 찾아간 교수들에게 검도 이야기 대신 펜싱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이종림은 굴하지 않았고, 도장 확보에 더욱 열을 올렸다. 결국 이종림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성균관대학교 정문 옆 120평 정도의 학생회관을 검도 도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60년대에는 별도의 대한검도회 중앙도장이 없던 시절이었다. 1966년부터 성균관대학교 검도 도장은 대한검도회 중앙도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의 노력으로 일궈낸 공간의 확보란 성과는 운영예산의 확보, 검도부원 선발로 이어졌다.



그림 5. 1970년 성균관대학 검도장모습. 두 번째 줄 좌측 첫 번째 이종림 (이종림 소장 자료).

4) 금빛 동메달: 첫 세계선수권 3위

1973년 제 2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대표팀 선발이 성균관대학교 검도장에서 열렸다. 이종립은 그의 스승 도호문과 함께 대표팀의 일원이 되었다. 이종립과 19살 많은 도호문이 주장을 맡았다.

A조 B조 해서 리그전 해가지고 1등 1등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5명.. 그래가지고 3명인가를 뽑고 그 다음에 지정해서 우리 선생님이 주장으로 나갔어요. 도호문 선생님이 나보다 19살 많아요. 그 양반이 주장하시고, 또 한 분이 저 일본에 계신 박홍을 선생님이라고 그 두 분은 검도회에서 뽑아서 하고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경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발해서)갔죠(2015. 7. 3. 1차 인터뷰 중).

국가대표라고는 하지만 별다른 지원은 없었다. 대한검도회에서는 숙박과 식사비만을 지원했다. 기본적인 연습을 위한 운동복조차 선수 개인이 구입해야했다. 대한검도회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열악한 운동 환경 속에서도 국가대표 검도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세계검도선수권대회를 준비했다.

츄리닝 같은걸 뭐 각자가 돈을 추려가지고 하고 뭐 그랬죠. 대한검도회도 그 때 어려울 때고. 근데, 그.. 여관 값하고 먹고 자는 거는 협회에서 대주고. 뭐 이제 그.. 가까운 분들이 경찰이 많았으니까. 성북 경찰서 서장 이런 사람이 뭐 (고기)땀 근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그 날 여관에서 밥 먹을 때 잔치를 하고 그런 정도였죠. 그 때가 좋았어요(2015. 7. 3. 1차 인터뷰 중).

1973년 4월 국가대표 검도 선수단은 단체전을 위해 우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대회 1주일 전에 도착한 대한민국 검도대표단은 차분히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했다. 상대는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던 일본이었다. 이종립의 상대는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는 죽도를 머리 위로 드는 생소한 상단선수였다. 당시 대한민국 선수들은 주로 배꼽 앞에 죽도를 부는 중단을 사용했다.

당시만 해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하는 것보다 전일본선수권대회 우승하는 게 더 힘들다는 때예요. 그 (자신과 상대한)상단선수가 전일본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뽑혀 나온 선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상단을 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상단이라는 데 대한 무슨 공포 같은 거는 아니지만 좌우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상단으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줬는데(웃음), 다들 보니까 생각 같지 않고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고 한 손으로 치는데 상단은 들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치는데 굉장히 빠르고, 예. 다행스럽게도 많이 움직여서 상단으로 맞지는 않았어요. 상단으로 맞지는 않았는데, 의외로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뒤로 떨어지면서 퇴격이라는 걸맞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조금 더 그 우리나라에 그런 걸 하는 분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좋았을걸. 뭐 깨끗하게 지고 나왔으니까 한 가지 위로가 된다면 난 상단에서 맞고 지지는 않았죠(웃음). (2015. 7. 16. 2차 인터뷰 중).

이종립은 아쉬웠지만 결과에 승복했다. 5명 중 4명이 진 단체전은 이종립 뿐 아니라 대한민국대표단의 완벽한 패배였다. 하지만 일본에게 패배한 분은 풀리지 않았다. 시합 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은 훗날 개인전에서의 설욕을 기약했다. 이후 5일 정도 휴식을 취한 대한민국 검도 대표단은 개

5) 뒤로 떨어지며 공격하는 검도의 기술

한 검사(劍士)의 생애사(生涯史)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검도의 역사

인전을 치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이종립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개인전 하는 날. 뭘 잘못 먹어서 설사를 만났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이게 몸이 영 떨리고 그 왜, 설사하면 화장실 밤에 여러 번 가잖아요? 그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너 해볼 만하다. 한 번 해봐라. 그거, 당신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이 가벼우면 너한테 반드시 좋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뭐 믿지는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고, 한다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한 번 해 봐야겠다 (2015. 7. 3. 1차 인터뷰 중).

도호문 선생의 조언대로 이종립의 몸 상태는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됐다. ‘포기하지 말자’, ‘하면 된다.’란 긍정적인 생각도 도움이 됐다. 이종립은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경기력으로 예선 1차, 2차, 3차 시합을 모두 2대0으로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종립은 당시 몸 상태를 ‘날 듯 했다.’고 회상했다. 3위는 확보한 상태. 준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단체전 패배를 안겨줬던 일본 팀 선수였다.

그 때는 심판이 3명이 할 때예요. 심판이 3명을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하면, 일본 심판 하나, 우리나라 심판 하나, 3국인 하나. 근데 그 3국인이라는 게 일본계가 오는 거지. 내가 손목을 쳤는데 한국 심판하고 3국 심판 둘이 깃발을 들었다고. 근데 일본 심판이 ‘중지’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머지 두 심판이) 그 사람이 들면 그게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 사람 따라줘야 되는데 그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니까 일본 심판이 중지하잖아요. 그 사람이 주심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2015. 7. 3. 1차 인터뷰 중).

이종립이 먼저 손목을 쳤고, 이후 일본선수에게 머리를 가격 당했다. 두 선수의 기술과 타격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상황. 일본인 주심을 제외한 두 심판은 이종립의 손목 타격을 유효한 것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손목 판정이 난 상태에서 주심이었던 일본인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켰다.

양쪽 선수들이 떨어져 있고, 심판 셋이 가운데 모여서 합의를 하더니 다시 모여라 그러더니 깃발 바뀌 든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손목을 맞고 그냥 있었으면 줄 수 있었는데 맞고 저는 저대로 머리를 쳤다 말이지요. (제가)머리 맞았어요. 내 생각에는 나도 손목 쳤다고. 근데 (일본인 주심)심판이 뭐라 그러냐, 손목은 약하고 칼로 치자면 머리가 제대로 됐다. 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심판은 아니다. 근데 제3심판이 췌습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바뀌는 거죠 (2015. 7. 3. 1차 인터뷰 중).

메달의 색깔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시합은 10분간 중단됐다. 대한민국 검도대표단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바뀐 판정은 다시 번복되지 않았다. 결국 이종립은 판정번복으로 인해 사상 첫 국제검도대회 결승전 진출이란 성과를 포기해야 했다. 이종립에게 승리한 일본인 선수는 결승전에서 승리해 세계 1위가 되었다.



그림 6. 제2회 세계검도선수권 대회 3위 시상식



그림 7. 제2회 세계검도선수권 동메달

3. 이종림의 ‘검사(檢史)’

1) 월탄선생과의 조우 : 격검(擊劍)선수

“어이 격검(擊劍)선수.”

호(號)가 월탄(月灘)이었던 박종화 교수는 시인, 소설가, 문학 평론가로서도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던 박종화는 검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종림을 “검도선수”가 아닌 “격검선수”라 불렀다.

그 월탄 선생님이 검도를 좋아해요. 근데 그 양반 나보고 검도 선수라 하지 않고 어이 “격검 선수”, “격검 선수”라 그래요. 나는, 뭐 월탄 선생은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 국문학계 특히 뭐 소설계에서 대단한 분인데 내 속으로 ‘아 이 노인네가 검도를 모르나 보다.’ 격검 선수라고 그러니까.(2015. 7. 3. 1차 인터뷰 중).

‘검도’를 ‘격검’이라 칭하는 박종화를 국문과 대학생이었던 이종림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검도를 좋아하는 ‘교수의 장난’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훗날 박교수와와의 만남에서 이종림은 ‘격검’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도하기 전의 이름이 격검이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격검 때 (검도를)경험한 거예요. 그니까 나한테 격검 선수라 그러고. 죽도는 격검대라 그러고. 나중에 알았어요(2015. 7. 3. 1차 인터뷰 중).

검도선수생활을 하며 만나게 된 성균관대학교 체육과 김상구 교수의 조언도 검과 격검에 대한 이종림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성대 체육과에 김상구 교수님이라고 체대학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 분도 화랑도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없고 우리나라는 풍월도라는 말이 원류가 되는 말이다.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때도 그 당시에는 이 양반들이 뭘 잘 모르는구나(2015. 7. 16. 2차 인터뷰 중).

‘아 뭔가 한국검도의 역사를 좀 찾아야겠다.’ 검도를 업으로 살아온 이종림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검도의 원류 일본’ 자신이 지금껏 배우고 행하고, 믿었던 지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이러한 궁금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던 이종림은 선수생활을 그만 둔 후 검도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

2)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와 조선세법: 검도의 원류(原流)를 찾아서

1964년 이종림은 한 지인으로부터 한 비급(秘級)의 복사본을 건네받았다. 그는 대단한 무술비급으로 복사본을 소개했고, 이종림에게 검법을 연마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림이 우연히 ‘무예도보통지’를 접하게 된 계기였다.

돌아가신 송성식 선생이라고. 이 분이 무예도보통지 원본을 갖고 있는 분한테 가서 그걸 베껴온 거예요. 그거 놓고 이렇게 미놓지 놓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잖아요? 그걸 베껴갖고 온 거예요. 글씨는 못 베끼고 그림만 베껴왔어. 그니까 나한테 베풀어 주시고. 그.. 나는 결혼을 늦게 했으니까. 그 양반이 나보고 아주 절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장가 안 간 사람은 이걸 하면 날라 다닌다는 거지.” 그 양반은 잘 몰랐어. 나도 야 이게 무슨 중국소설에 나오는 대단한 무술비급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예도보통지예요. 무예도보통지의 검법을 베껴갖고 온 거예요(2015. 7. 3. 1차 인터뷰 중).

6) 보여주다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에 발간된 책으로 조선 후기의 무예훈련 교본이었다. 다른 군사 서적들이 전략, 전술 등 이론 중심 기술의 형태였다면, 이 책은 전투동작 하나하나를 구분해 설명한 실전 훈련서적이었다. 각 전투 동작별 그림과 해설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종립에 따르면 ‘무예도보통지’는 “궁시(弓矢)를 제외한 24가지 전투 기술이 기록되어있는 한·중·일 최초의 책가”이었다.

우연히 접하게 된 ‘무예도보통지’는 이종립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설레는 가슴을 가다듬고, 대한민국의 검법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 그 책이 ‘무예도보통지’이며, 오류도 많은 책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무예도보통지가)아쉽게도 그걸 허투(虛套)라고 할 수 있다고요. 모양은 그럴 듯한데, 그 안이 뭐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검도의 기본적인 기술, 뭐 철학적인 기술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한문으로 되어있고 뒤에 언해본이 달려있고. 그래서 그걸 뭐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왼쪽 치고 그거만 있을 뿐이지, 왜 앞으로 쳐야 되고 앞으로 칠 때는 어디까지 어떻게 치고 뒤로 갈 때는 어떻게 치고 그런 게 없어요 (2015. 7. 3. 1차 인터뷰 중).

그는 ‘기효신서(紀效新書)’가 무예도보통지의 원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1560년 중국 명나라 장군 척계광(戚繼光)이 발간한 병서다. 이

책이 한국에 알려진 계기는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이었다.

그 책의 원문은 기효신서(紀效新書)⁸⁾라는 것인데 중국의 기효신서를 첫 번째로 베껴온 게 임진왜란 끝나던 해예요. 1598년이 임진왜란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때 발간된 책이에요. …(중략)… 5000년 역사를 가졌다는 나라가 조선조에 와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궁시, ‘활’ 밖에 없었대? 말이 안 되죠. 나머지를 척계광이가 낸 ‘기효신서’를 따라가 지고 여기 왔던 그런 명나라 장수들한테 한교가 질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랴부랴 베껴온 게 임진왜란 7년 동안에 끝나던 해에 만든 게 무예도보통지라고 해요. 미리 만든 것도 아니예요. 전쟁 끝나던 해에 만든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조대왕도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뭐 없어요. 그 왕도 삼국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땠고, 당태종이 우리한테 와도 어떻게 도망가고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건 중국 기록에 있으니까(2015. 7. 3. 1차 인터뷰 중).

이종립은 칼럼 ‘조선세법 보급의 의미’에서 ‘기효신서’, ‘무예도보통지’, ‘조선세법’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검술 혹은 검법(劍法)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름만으로 전해지는 것으로는 중국 등에 몇 가지가 전해지고 있으나, 그 실체가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 정조(正祖) 때의 <무예도보통지>에 있는 ‘본국검법’과 중국<무비지(武備志)>에 소개된 ‘조선세법’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책에 실려 있는 것으로 <기효신서(紀效新書)>를 통해 이미 알려진 ‘장도법(長刀 혹은 왜검)’은 ‘조선세법’에 비해 깊이가 매우 떨어지는 것 …(중략)… 일

7) 총 4권으로 구성되어있다. 1권에는 장창(長槍)·죽장창·기창(旗槍)·당과(鎗鎗)·기창(騎槍)·낭선(狼筈), 권2에 쌍수도(雙手刀)·예도(銳刀)·왜검(倭劍), 권3에 제독검(提督劍)·본국검(本國劍)·쌍검·마상쌍검(馬上雙劍)·월도(月刀)·마상월도·협도(挾刀) 및 등패(藤牌)의 요도(腰刀)와 표창(標槍), 권4에 권법(拳法)·곤봉·편곤(鞭棍)·마상편곤·격구(擊球)·마상재(馬上才) 등 총 24가지의 기술이 수록되어있다(두산백과 참조)

8) 중국 명나라 장군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병서(兵書).

본에도 ‘거합(居合: 이아이)’이라는 몇 가지 종류의 검법이 있으나 그 역사나 실제적인 면에서 ‘조선세법’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수백 년간 소홀히 하거나 잊고 지냈다(이종립(2005)의 ‘쌈이 깊은 물은’, 서울: 명일사. pp. 15-19).

검도의 원류를 알기 위해 검에 대한 자료를 찾고 또 찾았다. 검에 대한 호기심은 이종립의 발걸음을 대학원으로 이끌었다. 이종립이 성균관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한 1982년 그의 나이 44세의 일이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검도협회 사무장, 검도인 더 나아가 무도인의 한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이라 생각했다. 대학원에 입학한 이종립은 ‘한국 검도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1983년 석사학위논문 ‘한국고대 검도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1999년 학회지 ‘조선세법고’, 2005년 검도교보 ‘조선세법’ 등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그는 ‘정통검도교본’과 검도 칼럼집 ‘쌔미 깊은 물은’의 저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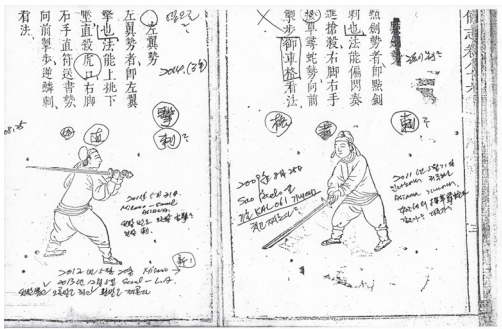


그림 8. 이종림이 항상 지니고 다니며
연구하는 조선세법 복사본

이종립의 노력을 주축으로 대한검도회는 2003년 5월 11일 제1회 조선세법 경연대회를 개최했고, 2006년 1월 24일 조선세법 단(段)증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대한민국은 일본 검도형식과는 다

르게 조선세법단을 발급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연구자: 근데 이제 조선세법이나 본국검법 같은 것은 한국만 있는 것이죠?

이종립: 그렇죠.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옛날에 만
들어져 있던 걸 잊어버린 걸 내가 찾은
거죠.

연구자: 대한검도회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이종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이제는 단도 주자. 일본도 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검도 단이 있고 거합(居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칼하고 비슷해. 근데 난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한국)여기서 간 거예요. 그니까 이게 (한국에선) 400년이나 된 건데 일본은 그 후에 거합이라는 게 생겼다고. 거할 때의 거자에 합친다는 합자. 일본 발음으로는 ‘이아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린 그런 줄만 알았는데 본국검법을 공부해보니까 여기 있는 게 일본 사람 하는 데에 있어요. …(중략)…

연구자: 선생님 그럼 이게 도입된 지는..

이종림: 내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단을 시작한 게 한 10년 돼요. 82년부터 공부했어요. 이게 책이 없어서 미국의 유시버클리이라는 데에 가서 찾았어요. 유시버클리에 있는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학교에 그런 책이 있는 것 같다. 진짜 중국책을, 우리나라 거 일본 사람들이 훔쳐가듯이 중국 책을 미국 사람이 훔쳐가서 유시버클리 대학 도서관에 갖다 뒀어. 그래서 그게 240권이야.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 9권이, 그 중에 9권만 무예에 관한 거예요.

연구자: 그래서 이게 선생님께서 찾아내시고 도
입시키신 건..

이종립: 그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죠.

9) 'UC Berkeley'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한 대학교.

82년도부터 해가지고 논문으로 쓴 건 체육학회에 논문으로.. 조금 있다가 전부 검도하는 사람들이 이걸 ‘단을 줍시다.’ 해가지고 단을 주기 시작했죠.

...(중략)...

연구자: 체계를 만드는 것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종립: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처음에 할 때는 다 힘들죠.

연구자: 조선세법을 한국검도에 도입하신 거네요.
이종립: 그렇죠(2015. 10. 3. 3차 인터뷰 중).

4. ‘Kendo’ 아닌 ‘Kumdo’

1970년 국제검도연맹이 생긴 후 검도의 공식 명칭은 일본식 발음 그대로 ‘kendo’가 되었다. 일본이 검도의 종주국(宗主國)이란 이유에서다. 1970년 어느 날 국제검도연맹(IKF : International Kendo Federation)으로부터 한통의 공문이 대한검도회로 날아왔다. 본부가 일본 도쿄(東京)에 위치해서일까? 국제연맹이었지만 서신은 영어가 아닌 일본어로 쓰여 있었다.

일본에서 우리한테서 공문이 왔어요. 일본말로 왔어. ‘어?’ 건방지지. 그 때만 해도 그럴 때예요. 그래서 내가 사무장이어서 내가 영어하는 사람한테 불려서 서투르게 영어로 해서 우리나라는 당신네 글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2번인가 공문을 돌려보냈죠. 그러더니 영문으로 오더라고. 켄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켄도라고 안 한다. 우린 검도라고 얘기한다. 몇 년 걸렸어요. 자기네가 갖다가 우릴 베풀어요. 한국을 빼면 모두 다 켄도라고 쓴다 (2015. 7. 3. 1차 인터뷰 중).

이종립은 어렸을 때부터 읽고, 듣고, 말해온 ‘검도’라는 용어대신 일본식 ‘켄도’라는 용어 사용에 불만이 있었다. 대한검도회 사무장이었던 이종립은 ‘검도’라고 쓴 한글을 ‘켄도’라고 읽을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용어사용을 ‘하느냐’, ‘마느냐’ 국제검도연맹(일본)과의 논쟁이 지속됐다.

이태리 사람한테 펜싱¹⁰⁾ 아냐고 했더니 “펜싱?” 이태리에서는 ‘스케르마’라고 한다는 거야. 이태리 말로. 너 스페인어 써봐라. Scherma예요. 아 이거 내가 무식해서 몰랐구나. 펜싱협회에다가 그 국제연맹 명단 갖다 달라했더니 갖고 왔어요. 펜싱이라고 하는 나라는 쉰 몇 개국밖에 안 되고...(중략)... 스페인도 에스파냐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e자고 시작해. 불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명칭을 비슷한, 그렇게 하는 나라가 60개국 넘어요. 펜싱이라는 나라보다 ‘에스크라이마’라고 하는 나라가 더 많다고. 그 다음에 스케르마라고...(중략)... 크게 노나서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나라가 다섯 개 정도가 된다고. 그걸 국제연맹에 보냈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찌소리 안하고 한국 kumdo라고 보내는 거예요. 펜싱 보니까 그렇거든. ...(중략)...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미국 같은 데 가서 우리 검도하는 사람이 검도 그러면 뭐 어찌고 그러는데 내가 가면 복사 떠서 다 외국인 협회 검도하는 사람한테 줘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베풀라. 이거 베풀면 무슨 말인지 안다. 그 사람들은 동시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우리는 일본보다 적어도 500년 1000년 앞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하죠(2015. 7. 3. 1차 인터뷰 중).

이종립의 노력으로 용어사용의 다양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도(kumdo)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검도회가 국제검도연맹의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종립이 연구한 검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되었다.

10) 펜싱(fencing)의 잘못.

5. 대한검도회의 중앙도장 건립

성균관 대학교 시절 중앙도장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이종림 대한검도회 회장은 행정가로서 ‘검도회 연수원’ 건립에 노력을 쏟았다. 중앙도장 건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수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이종림 회장은 자체 기금 모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1974년 이종림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전국에 있는 검도유단자들을 재등록을 받았어요. 기록을 보니까 900명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500원 받았어요. 500원 받아가지고 그 우편요금도 다 댔을 지도 몰라요.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공식적인 모금이 아니라 대회에서 경비 좀 남으면 모아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서울에다가 무슨 연수원이나 중앙도장을 짓는다는 건 뱀 의미 없는 것이다. 왜냐면 서울에 이미 도장이 이미 50군데, 100군데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서울에 중앙도장을 만들면 그 도장을 하는 주위에 있는 뭐 반경 4킬로에서 8킬로는 도장이 다 문 닫혀야 됩니다. 도장이라는 거는 수익 가지고 자기 생활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러가지로 경비도 적게 들고 옆에 사람도 피해주지 않고 하는 데를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연수원을 생각을 한 거죠(2015. 7. 16. 2차 인터뷰 중).

검도인들의 노력과 정성이 모아져 기금이 마련되었다. 어렵게 마련된 기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 그는 발품을 팔아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2001년 6월 1일’ 마침내 모든 대한민국 검도인의 염원을 담은 중앙연수원이 개원하게 됐다.

제가 거짓말 좀 보태서 한 백 군데 쯤 돌아댕겼습니다. 주로 경기도, 충남, 강원도까지. 뭐 일 년 반

돌아다니다가 지금 연수원 자리를 만났고 그 때 마침 대한검도회 회장하던 분이 꽤 큰 건설회사인데 거기 부회장을 맡았어요. 저희보다도 젊은 저한테 검도를 배운 분인데 그 분이 “선생님 하신다 그러면 뭐든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쫓아댕기면서 음성 그 자리를 그 분하고 나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회사의 지관(地官)¹¹⁾까지 따라갔어요. 지관이 이렇게 보더라고. 터를 놓고 이렇게 보더니 “이런 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해가지고 모금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회에다가 바로 얘기를 해서 5억을 받고 5억은 음성에 보내서 도로를 댕게 하고 그러고 저희도 인제 뭐 한 20억 이상 들어가고 그래서 연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전부 우리 검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2015. 7. 16. 2차 인터뷰 중).



그림 9.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개원식 무학당 앞 공터



그림 10.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개원식 무학당(武學堂) 내부

IV. 결 론

이 연구는 검사(劍士)이자 검(劍)의 역사(歷史)를 연구해온 이종림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검사(劍史)를 이해하고자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종림의 삶을 그의 경험과 업적에 따라 경기인으로의 삶(劍士)과 연구자로서의 삶(劍史)

11)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밋자리 등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

으로 구분했다.

연구결과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 검도를 시작한 이종림의 삶은 개인적 경험인 동시에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아 보급·유지되던 검도를 시작했고, 이후 1958년 39회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1965년 26세의 나이로 늦깎이 대학생이 된 이종림은 당시 중앙검도회 역할을 했던 성균관대학교의 검도도장 확보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1973년 제 2회 세계검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3위에 입상한 그는 검도사범으로서 검도발전에 기여했다. 1974년 제 55회 전국체전 단체전 금메달 획득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그의 삶은 검도기술을 체득하고, 검도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검도에 대한 고민은 검도의 역사를 연구하게 된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종림은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기효신서(紀效新書)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검의 원류를 연구했고, 결과물을 통해 잊혀져있던 ‘조선세법’을 재연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도의 원류가 일본이라는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년간에 걸친 국제검도연맹(IKF)과의 논쟁 끝에 대한민국은 일본식 표기법인 ‘kendo’가 아닌 ‘kumdo’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검과 함께해온 63년의 세월. 검사로서 ‘남을 속이지 말라’는 스승 도호문선생의 가르침을 몸과 검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검의 역사를 찾고 찾고 또 찾았다. 그가 걸어온 63년의 검도의 길은 대한민국 검도가 걸어온 길과 궤를 같이한다. 검사(劍士)로서 검사(劍史)를 연구하는 이종림. 그는 검사로서의 삶을 통해 체득한 검도를 연구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체계화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검도(kumdo)의 학술적 논리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김권택, 2010, 이상호, 2013). 하지만, 이종림과 여러 학자들의 노력에도 많은 사람들이 검도의 종주국을 일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화된 인식을 다르게 바라보고자한 이종림의 삶. 이것이 검사로서 검도의 원류를 찾기 위한 이종림의 삶과 노력에 주목해야할 이유다.

참고문헌

- 김권택(2010). 신라화랑의 신체활동과 무도사상고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대학원.
- 대한검도회. 대한검도회란. 2019.9.16.일 발췌, http://www.kumdo.org/deahan_kumdo/d-kumdo1-2.php
- 류태호(2000). 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9(3), 725~739.
- 박지훈, 김영학(2017). 검도 연구 동향(1995~2017). 대한무도학회지, 19(3), 87~96.
- 오교문, 임용석(2018). 한국과 호주의 양궁 학생선수 육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4), 99-112.
- 이상호(2013). 화랑세기에서 보이는 검도(劍道)의 해석학적 함의. 대한무도학회지, 15(2), 63-78.
- 이영학(2015).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 이종림(1983). 한국고대 검도사에 관한 연구: 신라본국검법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대학원.
- 이종림(1989). 고대 한국검술의 일본 전이에 관한

- 소고. 한국체육학회지, 28(2), 2089~2096.
- 이종림(1999). 조선세법고. 한국체육학회지, 38(1), 9-21.
- 이종림(2005). 조선세법. 대한검도보, 21, 18-50.
- 이종림(2013). 샘이 깊은 물은. 서울: 명일사.

ABSTRACT

A Case Study of Korean Kumdo History:
Based on Lee, Jong-Lim's Life History

Yim, Yong-Suk(Chungbuk National Univ.) · Hong, Deock-ki'(Gyeongsang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Kumdo. To do this, Lee Jong-Lim was purposefully chosen to understand Korean Kumdo history. Data were collected using historical Kumdo documents including articles, news papers, personal documents, pictures and magazines. Interview was conducted two times with Lee Jong-Lim. Data were analyzed using domain analysis and constant comparison analysis. Lee Jong-Lim's life history results showed that the three themes emerged. First, it revealed sociocultural context in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Second, the history of Korean Kumdo was identified. Third, a root of Korean Kumdo was examined. It showed that the root of Korean Kumdo was misinterpreted through Japanese occupation period. Lee Jong-Lim's life history revealed that the original name of 'Kumdo' was widely recognized in the result of his effort and interest.

Key Words : kumdo, kumdo player, physical education history, origin

논문투고일 : 2019. 11. 18

논문심사일 : 2019. 12. 09

게재확정일 : 2019. 12. 26